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캐나다	기관	SFU(Simon Fraser University)	파견기간	2024. 01 (한 달)
프로그램	2023 동계 캐나다 Simon Fraser University 단기연수				

성명		학번	
소속			
연락처		E-mail	

프로그램 지원 사유		외국에서 생활하는 경험을 하고 싶었는데 학교를 통해 홈스테이와 비자 등 많은 부분이 안전하게 보장되면서 외국에서 여러 경험을 할 수 있어 지원함.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프로그램 관련 등록금과 비용은 학교에 원화로 넉넉하게 송금 후 학교에서 환율에 따라 SFU에 지급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모두 각자 개별로 진행했으나 담당자분께서 상세하게 피피티로 다 알려주셔서 그대로 따라하면 되었고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다 공지해주심.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SFU에서 금요일마다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현금으로만 받아서 소량의 현금이 필요하지만 생활하면서는 대부분 카드로 결제함. 비가 자주 와 우산이나 바람막이 가져가면 좋고 홈스테이에서 신을 신발이나 슬리퍼 있으면 좋음.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SFU 본캠퍼가 아닌 다운타운 캠퍼스로 건물 하나를 이용하는데 일부 SFU학생들과 여러 국제 학생들이 같이 이용함.
	교육 시설	   시설 깔끔하고 건물 전체에 와이파이 됨.
	기숙사 시설	홈스테이는 가정별로 다른데 보통 한 가정에 한 명씩 배정되거나 가끔 같이 배정되거나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홈스테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 내가 배정되었던 홈스테이는 정말 잘 챙겨주셔서 편하게 생활했고 난방도 잘 되는 편이었으나 다른 분들은 비건 가정이거나 난방이 약한 분들도 있었음. 하지만 대부분 시설은 깔끔한 편인 걸로 들음.
	편의 시설	학교에 층마다 정수기 있고 점심 먹을 수 있는 휴게실에 전자레인지, 포트기, 냉장고 등 편의시설 잘 되어있음.
	기타 정보	다운타운 캠퍼스라 다른곳으로 이동하기 쉽고 바로 근처에 백화점이나 다양한 음식점 있는게 장점. 지하철로 가면 팀 홀튼으로 바로 이어짐.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컴패스 카드 1달권으로 스카이 라인이랑 버스, 시버스까지 가능한데 보통 2존으로 하면 다 다닐 수 있음. 비용은 존 개수마다 다름.
	식사 여건 및 비용	외식 비용은 한국보다 조금 비싼 편 학교 주변 식당은 1~2만원 사이. 레스토랑은 기본 팁이 많이 붙어서 생각보다 비싸짐. 저렴하게 먹고 싶으면 팀 홀튼에서 1만원 이내로 식사 가능.
	관광지 정보	학교 마치고 간단하게는 주변 해변이나 그랜빌 아일랜드, 스탠리 파크 등 가까운 곳을 다니고 주말에 그라우스 마운틴, 휘슬러, 노스 밴쿠버, UBC 등 멀리 가는 것을 추천.
	기타 정보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고 밤에 버스 팀이 길어져서 주의해야 함. 대부분의 지역은 안전한데 위험한 몇 구역은 피하는게 좋음.
교육 정보	강의 구성	오렐 스킬, 컴포지션, 뉴스 미디어, 리스닝 프랙티스, 문학, 캐나다 스터디 등 6개 수업을 들었는데 반마다 조금씩 강의가 다름.
	교육 내용	수업 주제에 맞게 구성 수업에서는 땡큐 레터를 써보거나 뉴스 미디어에서는 뉴스를 읽는데 그게 주는 아니고 보통 그걸 주제로 조끼리 대화하거나 다 같이 의견을 나누는 수업이 많았음.
	강사진	선생님들 모두 너무 좋으셨고 한 선생님이 여러 수업을 맡으시거나 다른 반에서는 다른 수업을 맡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음.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금요일에는 다른 곳에 현장학습을 가고 오후에 신청한 사람들만 추가 활동을 하는데 그랜빌 아일랜드, 밴쿠버 뮤지엄 등 다양한 곳에 감. 미리 한 달 동안 어디를 갈지 알려주니 참고해서 계획 짜면 좋음. 추가 활동은 볼링, 영화 등 재밌는 활동도 여럿 있었음.
	기타 정보	아플 때 빠지는 절차가 굉장히 간단하니 부담가지지 말고 사무실로 찾아가거나 연락하고 쉬는 것이 좋음.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금요일 오전 수업은 추가 비용이 없으나 오후 추가 활동은 신청하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함. 활동마다 비용이 다른데 보통 다 합쳐서 70~80달러였던 것으로 기억함.
	기타 정보	눈이 많이 와서 2일 정도 교통이 마비되고 교통 파업으로 2일 정도 스카이 라인이 운행 중지되었던 때가 있는데 이 때는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추가 활동도 하지 않음.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영어 실력이 근본적으로 늘었다기 보다는 많이 듣고 쓰다보니 내가 아는 영어를 더 잘 활용하게 되었음. 캐나다의 문화와 환경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홈스테이를 하면서 사회적인 문화 뿐 아니라 캐나다의 일반적인 가정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음.
	프로그램 장점	개인으로 준비하는 것 보다 학교와 학교가 연합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홈스테이나 학교 등 여러 준비 과정이 훨씬 수월하고 안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해결하기 훨씬 쉬움. 학교 수업도 영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외국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임.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없음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홈스테이 분들에게 부탁하면 프로그램 기간 앞 뒤로 더 머물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보통 밴쿠버는 치안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 학교가 위치한 다운타운과 주택가는 안전한 편이지만 가끔 홈리스들과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는데 말을 거는 경우 절대 돈을 주지말고 최대한 빨리 자리를 피하라고 합니다.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홈스테이가 배정되면 사전에 프로필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는데 미리 메일 보내서 인사하고 필요한거나 같이 홈스테이 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면 좋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고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나면 3시가 조금 넘는데 보통 5~6시에 해가 저서 사전에 어디를 갈지 계획하고 최대한 많은 곳을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로키산맥이나 옐로우 나이프(오로라), 미국(시애틀), 토론토 등 이런 곳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멀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프로그램 전 후로 가기도 하지만 주말을 이용해서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4년 02월 29일

작성자 :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캐나다	기관	SFU	파견기간	
프로그램					

성명		학번	
소속			
연락처		E-mail	

프로그램 지원 사유		영어 실력향상 겸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지원하였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학교를 통하여 등록 및 결제
	비자, 항공권, 여 행사 보험	비자와 항공권, 여행자 보험 모두 만일을 위해 미리 준비하였다.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환전을 조금이라도 해가는걸 추천한다.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캐나다에서, 밴쿠버에서 명성이 좋은 학교이다.
	교육 시설	강의 및 토의하기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기숙사 시설	홈스테이로 지냈다.
	편의 시설	점심을 싸와 학생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강의실 이외에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좋았다.
	기타 정보	X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교통카드를 구매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것이 편리하다.
	식사 여건 및 비용	물가가 한국보다 비싼만큼 많이 든다.
	관광지 정보	학교가 다운타운쪽에 있어서 편리했고 다운타운 말고도 스탠리파크와 휘슬러등 구경할곳이 많다.
	기타 정보	x
교육 정보	강의 구성	강의가 듣기와 쓰기와 같은 기본적인것과 발음에 관련된 수업이 있어서 좋았다. 또한 친구들과 친해지고 이야기할수있는 수업형식도 좋았다.
	교육 내용	강의가 듣기와 쓰기와 같은 기본적인것과 발음에 관련된 수업이 있어서 좋았다. 또한 친구들과 친해지고 이야기할수있는 수업형식도 좋았다.
	강사진	강사진들이 모두 친절하게 가르쳐주어서 좋았고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였다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정규수업의외에도 다같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구경하고 체험하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기타 정보	밴쿠버는 해가 일찍 지기에 활동하고 관광하기 아쉬울수도 있지만 환경에 익숙해지면 해 지고도 친구들과 노는경우가 많다.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기타 정보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해 영어에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향상되었으며 생각과 시야가 넓어졌다. 또한 여러 사람들을 새로 만나고 사귄수 있어서 좋았다.
	프로그램 장점	대화를유도하는식의 수업과 수업의외에도 나머지 시간이자유로운 것이 좋았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x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고민이 된다면 무조건 참가하는 것을 추천한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4년 2 월 29 일

작성자 :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캐나다	기관	SFU	파견기간	2023.12.30.~2024.01.28
프로그램	SFU ELC January 4-week Program				

성명			
소속			
연락처			

프로그램 지원 사유		다른 나라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타문화권에 대한 직접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실생활에 사용하면서 영어 듣기, 말하기 능력을 키우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프로그램 등록에 대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비자는 학교에서 알려주는 절차대로 준비해도 충분했습니다. 항공권은 프로그램 확정되고나서 되도록 빨리 예약했던 것 같습니다.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환전은 거의 안해가고 현지에서 쓸 수 있는 트래블월렛 카드를 만들어갔습니다. 실제로도 현금을 거의 쓸일이 없어서 충분했고 필요시에는 카드에서 출금해서 사용했습니다.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SFU의 ELC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교육 시설	수업하는 강의실과 건물이 넓고 쾌적해서 교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지않았습니다.
	기숙사 시설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고 홈스테이에서 지냈습니다. 정해진 규칙안에서 생활하면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하면서 궁금한것에 대해 여쭙보면 홈스테이 주인분이 잘 알려주셨습니다.
	편의 시설	수업하는 건물자체가 다운타운내에 있어서 교통수단을 이용해가기 편리했습니다. 건물내에 생활하면서 필요한 편의시설도 전반적으로 잘 갖춰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타 정보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교통카드에 요금을 충전해서 사용해도되는데 그보다 한달패스권을 만들어 사용하는게 금액적부분에서 부담이 적어 패스권을 사용했습니다.
	식사 여건 및 비용	교육기관이 있는 다운타운에는 다양한 식당이 많았고 역근처에도 식사할 곳이 많았습니다. 식사비용이 한국보다 비쌌고 팁문화도 있어서 식사비가 적잖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관광지 정보	학교건물 옆에 붙어있는 전망대가 유명해서 학생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 외에도 스탠리파크나 시내구경, 씨버스를 타고 노스밴쿠버도 갔습니다.
	기타 정보	
교육 정보	강의 구성	6개의 과목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월~목요일까지 수업하고 금요일에는 Field trip 활동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같은곳에 직접가는 현장체험학습을 했습니다.
	교육 내용	수업 전반적으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대화하는 활동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쓰기, 듣기, 말하기, 문화권에 대한 이해에 관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들과 팀으로 하는 활동이 많았습니다.
	강사진	모르는 내용을 다시 여쭙보거나 질문했을 때 친절히 알려주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을때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정규수업외에도 수업끝나고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업이나 다른 곳에 가서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서 희망하면 지원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정보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정규수업외에 신청해서 참여하는 외부활동 대부분 전혀 부담스럽지않은 가격으로 참여할 수있습니다.
	기타 정보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4주동안 규칙적으로 수업시간에 계속해서 영어를 사용하면서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듣는 능력이 전보다 좋아졌고 수업시간에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것들을 접해보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견문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장점	4주동안 수업을 듣는 것 뿐만아니라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얻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타문화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한국에서 어학수업을 들으면서 할 수 없는 새로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있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홈스테이 시설 이용에 큰 불편함이 없었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적응해나아가야해서 초반에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출국하기전에 자신이 갈 시기의 날씨를 잘 알아보고 기온에 맞는 옷을 준비해가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생필품은 사는것보다는 미리 준비해가는게 좀 더 편리합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작성자 :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캐나다	기관	SFU	파견기간	2024.01.02~2024.01.26
프로그램	상명대학교 캐나다 2024 Jan-SFU 연수프로그램				

성명			
소속			
연락처			

프로그램 지원 사유		영어 실력과 자신감 향상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대로 등록, 연수비는 프로그램 종료 후 장학금으로 지급됨. 신청 확정 후 출발까지 카톡방에서 상세히 안내해주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들만 잘 챙기면 됨.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캐나다 비자 eTA와 학교 Guardme 보험은 필수, 추가로 단기여행자보험을 신청함. 항공권은 날짜만 맞게 설정 후 원하는 걸로(직항/경유) 결제하면 됨.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50 환전 후 모두 사용함. 다만 친구들과의 더치페이 등에 쓰인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모두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많이 환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비가 정말 자주 오기 때문에 가방에 항상 우산을 넣고 다니는 게 좋음.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SIMON FRASER UNIVERSITY HARBOUR CENTRE
	교육 시설	교탁 쪽은 빔 프로젝터, 반대쪽은 TV가 있어 양쪽으로 수업 화면을 볼 수 있음. 교실 내 책상은 서로 마주볼 수 있는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음.
	기숙사 시설	홈스테이 거주. 본인이 있던 곳은 거의 모든 방면에서 최악이었음. - 입주 당일부터 침구류에 타인의 머리카락이 수두룩 붙어있고 식기류에는 닦이지 않은 음식물이 남아있었음. 욕실에는 곰팡이가 곳곳에 있고 세면대가 막혀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았음. 난방을 잘 틀어주지 않아 춥게 지냄. - 캐나다에 가기 전 알려지 있는 음식을 써냈고 홈스테이 측에 당연히 전달되었어야 하지만, 수차례 같은 음식이 나오며 항상 “전달받지 못했다, 몰랐다”라고 하여 컵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움. - 첫날부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등의 협박성 문장, 함께 거주하던 브라질 학생들과는 다른 차별 대우 (ex. 본인은 샤워 시간을 10분으로 고지 받았지만 그들은 시간을 훌쩍 넘기는 바람에 씻지 못하고 나가는 사태 발생. 홈스테이에 건의하니 “10분(minutes)이 아니라 10시(hour) 전이었다. 내가 잘못 알아들은 것이다. 그들보다 일찍 일어나 씻으면 된다”라는 책임감 없는 대처 / 방 안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거나 주방은 사용하면 안 된다 등의 규칙들을 브라질 학생들에게는 전혀 적용시키지 않음) - 잠겨있는 문을 강제로 따고 들어오거나 밖에 나가있을 때 사전 고지 없이 방 안의 구조물이 바뀌는 등의 사건 - 이밖에도 영어를 잘하지 못해 무시받는 등 다양한 부당 대우로 에이전시 측에 도움 요청을 함. 이후 의견 전달을 잘 했다는 답변이 왔지만 홈스테이는 아예 무시하는 태도로 바뀌어버림 (ex. 이전에는 메시지를 보내면 항상 답변이 왔지만 그날 이후 읽음 표시만 있을 뿐 질문 등에도 전혀 답을 하지 않고, “나갔다 온다” 등의 대화를 브라질 학생들에게만 전달함. 또한 처음에는 외출한다는 얘기를 안했다는 이유로 몇 시간 동안 질타했지만 이후에는 메시지조차 전혀 신경쓰지 않음 등등) - 퇴실 하루 전 나가는 시간을 얘기하고 문을 잠그는 방법까지 함께 대화했음에도, 다음 날 새벽 갑자기 방에 들어와 “새벽 6시에 나가야 하니 당장 짐을 싸라”며 통보. 영어로 말하려니 무시한 채 부부가 서로 “Does she always think crying will solve the problem? Then should I cry with her? lol” 등의 무시하는 발언을 주고받고는 자리를 떠 강제로 대화를 종료함. - 이외에도 다양한 사건이 있었지만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지냄.
	편의 시설	정수기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지하에 카페, 푸드 코트 등이 있음.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층을 이동할 수 있음.
	기타 정보	밴쿠버 내에 9곳의 캠퍼스가 있음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Monthly Card를 구매해 한 달 비용을 충전해두고 사용할 수 있음. Skytrain, Seabus, Bus 모두 탑승 가능함. 위치에 따라 Zone이 나뉘는데 다른 zone으로 이동 시 추가요금이 붙음.
	식사 여건 및 비용	대체로 가격이 비싸고 매장에서 먹고 간다면 추가로 팁을 내야하는 상황이 있음. 학교 근처에 다양한 식당이 있다지만 한정된 점심시간 안에 다녀오기는 힘들 수도 있음.
	관광지 정보	자연경관을 좋아한다면 어느 곳을 가든 만족스러운 풍경. 날 좋을 때 탁 트인 바닷가에서 노을을 구경하는 걸 추천.
	기타 정보	길거리에 노숙자와 마약한 사람들이 많아 마리화나 냄새를 자주 맡을 수밖에 없게 됨. 변화가는 위험하진 않지만 해가 일찍 지고 가게들도 문을 닫기 때문에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은 추천하지 않음.
교육 정보	강의 구성	6개의 강의로 구성. 하루에 세 과목씩 월요일과 수요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같은 강의를 듣는 형식.
	교육 내용	Canadian Studies, Composition, Oral Skills, News Media, Literature, Listening Practice으로 Listening, Speaking, Writing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음
	강사진	Alma, Scott, Veronica, Carol, Richard, Tim 남여 선생님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음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금요일 오전마다 밖으로 나가는 Field Trip 수업이 있는데 이 또한 정규 시간이므로 착각하고 빠지면 안 됨. 오후에는 희망하는 사람들 내에서 스케이트장이나 미술관 등을 가는 행사가 있지만 필참이 아닐 뿐더러 추가 비용을 내는 활동도 있기 때문에 참여는 자유. 개인적으로 그 시간에는 가고 싶은 관광지를 가는 게 더 만족스러웠음.
	기타 정보	거의 매일 과제가 있지만 금방 끝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온라인에 올리거나 종이에 써서 내야 하기 때문에 강의마다 헛갈리지 않도록 주의.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가기 전 SNS나 홈페이지 등을 잘 찾아보면 지역 내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를 확인할 수 있음. 1월에는 크리스마스과 관련된 불빛 축제 등이 많아 한 번쯤 참여하기 좋음. 비용은 무료인 곳부터 입장료가 있는 곳 등 다양함.
	기타 정보	멀리 간다면 사람을 모아 우버(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추천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단기간의 프로그램이라 영어 실력이 크게 늘었다거나 하는 등의 눈에 띄는 성과는 없지만, 자주 쓰는 생활 영어(식당에서 주문 등)에 익숙해지고 먼 타국에서 한 달 간 지내봤다는 경험은 값어치가 큼. 가장 오래 있는 홈스테이에서 대화를 많이 해야 한다지만, 예외로 본인은 홈스테이에서 차별을 당해 되려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긴 함.
	프로그램 장점	비행기 값만 지불하면 밴쿠버에서 안전한 한 달을 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 모든 문화를 다 보고 느끼기엔 짧은 시간이지만 맛보기 수준은 충분히 될 수 있음. SFU 시설과 수업 또한 만족스러웠음.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해가 일찍 지는 탓에 수업이 끝난 후 관광지를 다양하게 둘러보기가 쉽지 않음. 한 시간 정도 더 일찍 끝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음. 홈스테이 선정 기준을 높이길 바람.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다양한 문화가 섞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음. 억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는 단어도 안 들릴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질 것임.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홈스테이에서 불편한 점이 느껴지면 참지 말고 바로 에이전시에게 연락해 도움을 구할 것. 일정이 짧기 때문에 일찍 얘기해야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식사나 생활에서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곧바로 얘기할 것. 혹여 학생이 영어를 못해 이해를 못한 것이라는 편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녹음이나 영상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방법을 추천함.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작성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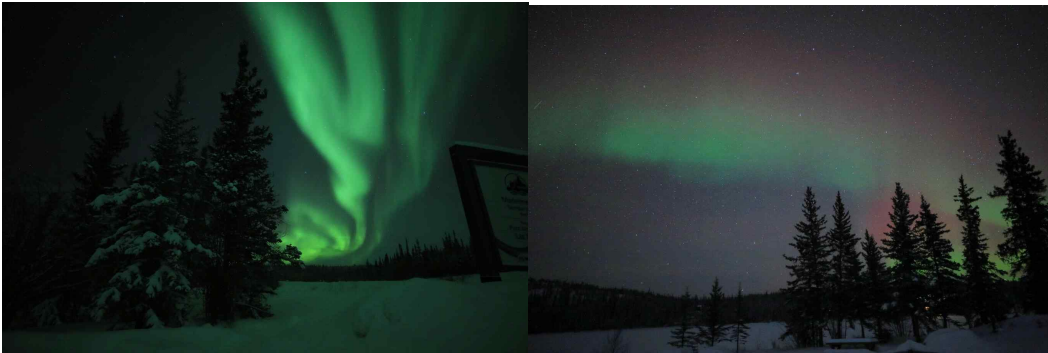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캐나다	기관	Simon Fraser University	파견기간	2024.01.02. ~ 2024.01.26.
프로그램	2023 동계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성명			
소속			
연락처			

프로그램 지원 사유		평소에 해외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고,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학교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환율을 고려하여 넉넉하게 송금한 후에 차액을 다시 돌려받았다.
	비자, 항공권, 여행 자 보험	비자 - 캐나다 eTA 비자를 신청(약 7천원) 항공권 - 스카이 스캐너 사이트에서 에어캐나다 왕복 항공권을 구매 여행자 보험 - 토글 보험 사이트에서 가격과 혜택 비교 후 적절한 것을 가입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환전 - 환전은 하지 않았고, 필요한 경우 캐나다 은행에서 출금하는 형식으로 사용 (트레블월렛 사용 시 Vancity에서 수수료 면제로 출금 가능) 준비물 - 우산, 장화나 방한화, 실내용 슬리퍼, 드라이기 등 개인 필요한 준비물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Simon Fraser 밴쿠버 캠퍼스에서 수업을 하였지만, 강의실은 정해진 곳에서만 수업을 해서 평소엔 이동 수업이 없었다.
	교육 시설	깔끔하고 편리하다. 칠판과 스크린이 존재하고, 자리에 따라 목이 아플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강의실 앞과 뒤쪽에 TV가 있었다.
	기숙사 시설	홈스테이에 따라 다르지만 내 경우에는 위치도 좋았고, 지켜야 할 규칙이 딱딱하지 않았으며, 집주인분들도 친절하고 집도 좋았다.
	편의 시설	다운타운쪽에서는 주변에 식당이나 한인 마트 등도 존재하고, 은행들도 가까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었다. 스카이트레인 역에서 나오면 바로 학교가 보이고, 주변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었다.
	기타 정보	물가가 조금 비싼 감이 있고, 역 주변에 노숙자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종종 마약 냄새가 날 때도 있다. 여행자 보험뿐만 아니라 파견 대학교에서도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Guardme)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compass 카드를 사면 한 달 동안 편하게 다닐 수 있었다(약 10만원). 내 경우에는 메트로타운 쪽인 2존에 살았지만 버스를 타고 1존에서 타면 1존 요금만 내면 되기에 1존 compass 카드를 구입하고, 나중에 더 돌아다닐 예정이라 약간의 돈을 더 충전해 두었다. 하지만 field trip에서 North Vancouver를 가는 경우 존 요금이 생기기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구입하면 좋을 듯 하다.
	식사 여건 및 비용	식사를 하는 경우 보통 2만원은 나온다. 주변에 식당은 많아서 괜찮았고, 가끔 우버이츠로 배달 음식을 시켜먹을 수도 있다. 만약 홈스테이에서 요리가 가능하다면 마트에서 재료들을 사서 개인 도시락을 먹는 것이 저렴할 수 있다.
	관광지 정보	내 경우 집 주변에 Central Park가 있었는데 만약 이 쪽이라면 한 번 가보길 추천한다. English Bay나 Sunset Beach 등 해변도 좋고, Stanley Park와 그 안의 아쿠아리움도 추천한다(학생증 제시 시 학생 요금으로 가능). Whistler(버스로 약 2시간), Victoria(버스, 페리) 등도 가보면 좋을 것 같다.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면 Seattle을 가는 것도 추천한다.
	기타 정보	
교육 정보	강의 구성	Canadian Studies - 캐나다의 문화와 역사 등을 배운다. Composition - 문법에 대해 배운다. Oral Skills -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 연습하고 종종 타국 언어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등을 들을 수 있다. News Media - 뉴스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를 배운다. Literature - 문학에 관련한 수업을 한다. Listening Practice - 영어 듣기에 대한 수업을 한다.
	교육 내용	위에 쓰여진 것을 바탕으로 영어 문법과 어휘를 배울 수 있다. 보통 조별로 수업을 하기에 다른 어학 연수 참가자나 타국의 학생들과 친해지기 쉬웠다.
	강사진	강사는 반마다 다르지만 Alma, Scott, Veronica, Carol, Richard, Tim 등이 있었다.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금요일마다 Field Trip이라고 현장학습을 나간다. 그랜빌 아일랜드, 박물관 등을 갔다. 9시부터 시작하는 것은 신청이 아니고 필수다.
	기타 정보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방과후 활동이 존재한다. 경우에 따라서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설명해주신다. 월요일엔 Conversation Club이라는 방과후 활동도 있었는데 다른 반 친구들도 함께 게임 형식으로 영어로 진행되어 재밌었다.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어학 연수 종료 후 개인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주변에선 미국, 퀘벡이나 토론토 등을 가는 것을 보았다. 필자의 경우에는 Yellowknife에 가서 오로라를 보고왔다. 비용은 숙소 3박 4일에 약 40만원 + 오로라 한인 투어 3일 약 40만원 + 왕복 비행기표 약 40만원 + 식비 등이 들었다. 
	기타 정보	만약 오로라를 볼 계획이 있다면 달이 잘 안 보이고 날씨가 좋은 날을 선택하길 추천한다.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확실히 영어로 대화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이 붙었다. 영어를 듣는 귀도 약간 트이고, 들을 때 어떤 전략으로 들어야 하는 지 등을 알 수 있었다. 강사님들과 학생, 홈스테이 주인분들과 대화하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배울 수 있었다. 문법도 유용하다 생각한다. 또한, 캐나다에 대해 관심이 더 생겼다.
	프로그램 장점	우리 학교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학교 사람들과 친해질 수도 있어서 좋았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현장 학습의 활동이 좀 더 다양해지면 좋겠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 트래블월렛 사용 시 compass 카드 구입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 Vancity에서 트래블월렛 카드에서 수수료 없이 돈을 출금할 수는 있으나 다시 입금을 할 수는 없기에 꼭 필요한 만큼의 돈만 출금해야 합니다. 보통 20CAD 단위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입금을 하려면 캐나디언 카드가 필요합니다. - 눈이 많이 오거나, 교통 파업 등 문제가 생기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노트북,패드 등을 적절히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 지내다 보면 매우 아쉽기 때문에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 짐을 최대한 적게 가져왔다고 생각했는데도 기념품 등을 사면 짐이 엄청 늘어납니다. - 너무 두꺼운 옷들을 챙기기보다는 여러 겹을 입을 날씨가지만 종종 눈이 많이 오면 추워질 수 있습니다. - 텀블러를 챙기는 것도 좋지만 현지에서 기념품샵에 예쁜 텀블러들도 존재하고 홈스테이 주인분께 빌릴 수 있다면 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학교 주변 가스 타운쪽 기념품샵 Hudson House에 작은 메이플 시럽 등 여러 가지를 판매하고 있으니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 밴쿠버 공항 쪽에 있는 mcarthurglen 아울렛에서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한국보다 싸게 할인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추천합니다. - 하키나 라크로스 등 현지의 스포츠를 관람해보시길 추천합니다. - 날씨가 빨리 어두워지긴 하지만 최대한 많이 돌아보시길 추천합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4년 2월 22일

작성자 :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캐나다	기관	Simon Fraser University	파견기간	2024.01.02.~2024..1.26
프로그램	동계단기어학연수				

성명			
소속			
연락처			

프로그램 지원 사유		전부터 어학연수를 가보고 싶었는데, 4주 프로그램으로 단기 어학연수를 모집하는 것을 학교 홈페이지에서 보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음.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학교를 통해 등록과 결제를 하였음.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비자는 학교를 통해 다같이 하였고, 항공권과 여행자 보험은 각자 하였음.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30만원 정도 환전하여 준비해갔지만, 실제로 현금을 쓸 일이 많이 없음.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Simon Fraser University
	교육 시설	학교 시설이 깔끔하고, 도서관, Student Lounge 등을 이용할 수 있음.
	기숙사 시설	홈스테이
	편의 시설	학교에 중간중간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많고, 지하에 매점이 하나 있음. Student Lounge에서 점심을 할 수 있음.
	기타 정보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compass card라는 한 달 이용권을 가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음. One-Zone기준 대략 11-12만원 정도
	식사 여건 및 비용	가격이 저렴하진 않은 편이라, 점심을 테이크아웃하여 Student Lounge에서 먹거나, 싸오는 경우가 많았음
	관광지 정보	겨울에는 5시만 되어도 해가 지기 때문에, 평일에는 학교 수업 이후에 학교 근처로 관광지를 찾아서 가고, 주말에는 휘슬러, 그라운드스 마운틴과 같이 거리가 먼 관광지를 가보는 것을 추천.
	기타 정보	
교육 정보	강의 구성	총 6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Composition, Canadian Studies, Listening Practice, Literature, Oral skills, News Media)
	교육 내용	영어에 필요한 6가지 수업으로 강의를 하며, 대부분 서로 직접 말하며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주임.
	강사진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다함께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이에 맞춰 강의를 진행하여 조별 활동이 많음.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외부활동 프로그램들이 많아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광지 정보를 알 수 있음.
	기타 정보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기타 정보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ELC 센터에서 영어로 수업을 듣고, 학생들과 영어로 소통해야하는 조별활동이 많기 때문에 듣기와 말하기 능력 모두 향상되었다. 조별활동은 같은 한국인과 같이 하기 보다는 다른 외국인과 같은 조가 되었을 때, 영어 실력을 더 쌓기에 좋았던 것 같다. 영어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다.
	프로그램 장점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의 수업이어서 더 편하게 영어를 말하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 너무 좋았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조별활동을 할 때에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진행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 캐나다에서는 atm기기에서 돈을 뽑는 것은 쉽지만, 넣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길 바람.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한 달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외국에 나가는 것이 처음이라 가기 전에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영어로 말해보려고 노력하고, 직접 대화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반의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지는 것을 추천드려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길어보이지만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고, 이 생활이 익숙해질 때 쯤 끝나기 때문에, 최대한 주말을 활용하여 많은 관광지를 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작성자 :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캐나다	기관	Simon Fraser University	파견기간	23.01.02~23.01.26
프로그램	단기 어학연수				

성명			
소속			
연락처			

프로그램 지원 사유		원래 여행을 좋아하기도 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며 영어 실력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오픈채팅방을 통해 공지를 잘 해주셔서 그에 맞춰 알려주신 계좌로 비용도 보내고 비행기 표도 끊었다.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항공권은 스카이스캐너 통해 가격 비교 후 마이리얼트립에서 약 210만원에 결제 여행자 보험은 마이뱅크에서 가장 싼 보험으로 가입했다. (기본은 다 되어있음)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환전은 30만원만 현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트레블 월렛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환전해가며 사용했다.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캠퍼스가 여러 개 있는 데 우리가 간 곳은 밴쿠버에 있는 캠퍼스로, 한 건물 밖에 없는 작은 곳이었다.
	교육 시설	시설 자체는 깔끔하고 좋았다.
	기숙사 시설	홈스테이 이용, 홈스테이는 2명에서 한 방을 써서 조금 작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홈스테이 분들도 친절하고 교통편이 좋았다.
	편의 시설	학교 건물에 음식점, 카페도 많이 있고 학교 주변에도 맛집들이 많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학교 건물 내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기타 정보	학교 뷰가 예쁘고 근처에 밴쿠버 유명한 지역 많아서 왔다갔다하기 편했다.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캐나다에 가서 monthly pass권을 구매해 한 달 동안 사용했다. 존이 3개가 있는데 주말이나 오후 6시였나 6시 반 이후로는 어느 존이든 상관없이 추가 비용이 붙지 않아서, 홈스테이에서 학교까지 1zone으로 해결 가능하면 1zone으로 구매해도 충분한 것 같다.
	식사 여건 및 비용	평일에는 저녁은 홈스테이에서 먹고 점심은 밖에서 사먹거나 마트에서 전날 먹을만한 것을 사가서 먹었다. 아침도 홈스테이에서 먹어도 되지만 시간이 없어 학교 1층 팀홀튼에서 간단히 사먹었다. 비용은 밖에서 먹으면 보통 기본으로 15,000원 정도는 나왔던 것 같다.
	관광지 정보	학교 근처가 대부분 밴쿠버 핫플들이라 학교 끝나고 한 군데씩 갔다와도 괜찮았다.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밴쿠버답게 자연 경관은 최고였다. 밴쿠버 내에서만 지낼 생각이면 한 달 내에 유명한 곳은 대부분 돌아볼 수 있다.
	기타 정보	시애틀이나 오로라를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곳을 갈 예정이라면 미리 알아보고 예약해서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교육 정보	강의 구성	캐나다 문화, 뉴스 미디어, 리스닝, 문법을 주에 4시간씩 배우고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마다 필드트립이라고 해서 박물관같은 곳 놀러감
	교육 내용	캐나다 문화랑 리스닝, 영어 단어 발음 하는 법 등 여러 가지 배웠는데, 한 반에 인원도 15-20명 정도밖에 안되고 그룹 참여 수업이 많아 수업 자체는 나름 알찼던 것 같다.
	강사진	교수님에 따라 다르듯 여기서도 강사님들 다 좋으신 분이었지만, 조금 졸리거나 지루한 수업도 있었다.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정규 수업 외 월요일에 남아서 하는 수업을 참여해본 적이 있는데 재미는 있었지만, 하루 수업 다 끝나고 더 들어야 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다른 곳 놀러가느라 한 번 밖에 들어보지 않음, 야외로 놀러가는 것도 있었는데 친구와 다른 곳 놀러가는게 더 좋아서 참여하지 않음
	기타 정보	한 반에 여러 국적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을 가면 영어 실력 늘리기에 더 좋을 것 같다. 내가 간 분반에는 한국, 중국, 일본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른 국적의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적어 수업 시간 내에도 한국어를 쓰는 일이 많았다.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비용은 학교에서 300만원을 지불해줘서 홈스테이와 학교 프로그램으로 든 비용은 약 30만원 정도였고, 이 외에 비행기표 200정도 들었다 그리고 한 달동안 생활하는 데 쓴 비용은 190정도 되었는데 조금 아끼거나 기념품을 안 사면 150내외로도 가능할 것 같다.
	기타 정보	프로그램이 다 끝나면 우리 학교로는 이수 여부로 p/f지만 그 학교에서만 따로 성적이 4.5만점 기준으로 나온다. 종종 결석을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출석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 출석은 잘 챙기는 게 좋다.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처음 가기 전에는 걱정도 많이 되고 아무래도 한달동안 살아야 하기에 두려움도 있었는데, 오히려 끝나고 나니 아쉬웠다.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이랑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없앨 수 있었던 것 같고,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영어로 주문하는 것 등 간단한 생활 영어 정도를 하는 것에는 익숙해지게 된 것 같다.
	프로그램 장점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국적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비록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홈스테이 분들과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많이 쓰게 되니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기에는 좋았던 것 같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서 살아봄으로써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3학점이나 받긴 하지만 학점을 조금 줄이더라도 일주일에 4일 정도만 가도 좋을 것 같다.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종종 날씨나 다른 일 때문에 학교 수업을 줌으로 하기도 한다. 내가 갔을 때는 버스 파업 때문에 이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틀 학교를 안가고 대신 집에서 줌으로 수업을 했다.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홈스테이 주인분들은 대부분 캐나다 분이 아닌신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 내가 간 집도 홍콩과 베트남 분이셨는데, 그래서 밥도 한식 위주로 많이 먹을 수 있었다. 홈스테이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 가족들끼리의 행사나 파티에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 한 달 동안 가기에는 기숙사보다 홈스테이가 좋은 것 같다.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사실 단기 프로그램이기에 영어 실력을 많이 늘릴 수 있지는 않다. 하지만 밴쿠버라는 나라를 한 달간 여행하면서 일상 생활에서 영어를 써야하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늘다보니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늘리고 싶다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밴쿠버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서 가고 싶다면 여름에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비가 하루종일 계속 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산을 들고 가야하는 일이 많았고 겨울에는 해도 5시면 지기 때문에 늦게까지 놀기가 쉽지 않다. 밴쿠버 내에서 돈을 인출하기는 쉽지만 입금하려면 그 나라의 계좌가 있어야 하기에 현금은 거의 최소한으로 들고가던가 사실상 들고 가지 않아도 별 문제 없을 것 같다. 프로그램 끝나고 바로 집에 오려면 아쉬울 수도 있으니 그 주 주말까지라도 있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홈스테이 분들에게 말해 하루치 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원래 있을 수 있는 기간보다 하루 더 있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4년 2월 19일

작성자 :

어학연수 프로그램 귀국 보고서

파견국가	캐나다	기관	Simon Fraser University	파견기간	24.01.02. - 24.01.26.
프로그램	2023 동계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성명			
소속			
연락처			

프로그램 지원 사유		영어권의 교육방식에 관심이 있었고, 외국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삶의 차이를 알아보고 견문을 넓혀보고 싶었다.
프로그램 준비 과정	프로그램 등록 및 결제	학교에서 제시한 금액을 지불한 뒤 추후 차액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였다.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	비자, 항공권, 여행자 보험을 개인이 준비하였다. 준비할 것이 많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정보들이 많이 있어 금방 쉽게 할 수 있다.
	기타 정보 (환전, 준비물 등)	생각보다 현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트레블월렛이나 트레블로그를 많이 사용한다. 본인이 평소에 먹는 약 정도만 잘 챙겨가면 캐나다도 사람 사는 곳이라 다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파견대학 기본 정보	기관 정보	SFU는 총 세 개의 캠퍼스가 있는데 어학연수 프로그램에서 다니는 캠퍼스는 Vancouver campus로 다운타운에 있는 캠퍼스이다.
	교육 시설	한국의 대학과 같은 형태의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기숙사 시설	홈스테이로 대체
	편의 시설	수업을 진행하는 캠퍼스의 건물 내 도서관, 컴퓨터실, 학생라운지, 푸드코트, 마트 등이 있다.
	기타 정보	기타 정보 없음

지역·생활 정보	교통 여건 및 비용	compass card를 구매 후 monthly pass를 구매하면 bus, skytrain, seabus가 무제한이다. 단 zone별 금액이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매하면 된다. 택시는 Uber, Lyft를 많이 사용한다.
	식사 여건 및 비용	홈스테이에서 아침과 저녁은 제공이 된다. 점심은 학교 근처에서 사먹거나, 본인이 도시락을 싸와서 해결을 하면 된다. 한끼를 사먹을 경우 대략 15-20달러가 든다.
	관광지 정보	밴쿠버에는 다양한 관광지가 있다. 한달동안 있으면서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밴쿠버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관광지, 여행지를 방문할 수 있다.
	기타 정보	기타 정보 없음
교육 정보	강의 구성	6개의 강의와 Field Trip이 있다. 6개의 강의는 월-목에 두 번씩 수업이 있고(12번의 수업) 금요일에는 Field Trip이라고 외부로 나가서 관광지나, 박물관 구경을 간다.
	교육 내용	기본적인 영어 회화, 문법, 어휘를 배우며, 캐나다 문화에 대하여 배운다.
	강사진	다양한 강사진분들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학생들을 배려하여 수업을 진행해주신다.
	정규수업 외 교육 정보	매주 금요일 Field Trip을 진행한다.
	기타 정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방과후 활동이 있기도 하다(필참은 아니고 지원을 받아서 진행한다. 무료도 있고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기타활동 정보	기타 활동 내용 및 비용	로밍과 이심 실물 유심 본인에게 적합한 수단을 찾아서 준비를 해야한다.
	기타 정보	기타 정보 없음

프로그램 참가 결과	프로그램 성과	한달이라는 기간은 언어를 배우기에 짧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간단한 의사소통과 안부, 본인이 여행을 하면서 필요한 영어 정도는 충분히 구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영어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리스닝 실력이 많이 증진된다.
	프로그램 장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단순히 언어학습 뿐이 아니라 본인의 경험하는 것을 토대로 세상을 보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개선 요구 사항	요구사항 없음
기타 사항	기타 참고사항	transit go어플은 대중교통의 도착시간 정보를 알 수 있는 어플이다.
	추후 참가자들을 위한 조언	학교 수업도 중요하지만 영어 실력을 가장 많이 증진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일단 뱉는 것이다. 홈스테이에서 사람들과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어찌보면 수업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서투르고 어색하여도 계속 입으로 뱉어야 자신감도 생기고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수업시간에도 본인이 열심히 참여해서 계속 소통을 해야 발전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귀국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작성자 :